로컬과 글로벌 사이에서*

- 유럽중심주의와 지구사 서술 -

김용우**

〈차 례〉

1. 머리말: 새로운 세계사 혹은 지구사
2. 반(反)유럽중심적 유럽중심주의
3. 역사학의 대안과 대안적 역사학
4. 맺음말: 호모 사피엔스의 역사

【국문초록】

이 글은 최근 활발히 거론되고 있는 “새로운 세계사”, 혹은 “지구사” 논의를 중심으로 유럽중심주의를 넘어선 진정한 의미의 보편사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유럽중심주의는 오랜 기간에 걸쳐 유럽의 헤게모니가 관철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유럽중심주의는 그 지역성을 넘어 보편화되었다. 필자는 유럽중심주의의 극복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서기 위해서는 그것의 위치와 작동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은 배제가 아니라 포괄이 유럽중심

* 본 연구는 2009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지원에 의한 결과임
** 이화여자대학교 지구사연구소 연구교수

주의의 작동방식이며 역사학, 역사의식이 유럽중심주의의 핵심 매개물이라는 인식에 도달하게 한다. 그러므로 유럽중심주의 극복의 첫걸음은 역사학을 역사화하는 데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오늘날 인류 전체가 직면한 환경의 위기는 새로운 의미의 보편사·지구사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주제어: 지구사, 새로운 세계사, 유럽중심주의, 거대사, 보편주의, 역사주의

1. 머리말: 새로운 세계사 혹은 지구사

지구적 전망의 새로운 역사서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러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역사가들은 이전의 세계사/보편사와 차별화하기 위해 "새로운 세계사(new world history)" 혹은 "지구사(global history)" 등의 개념을 제시한다.[1] 그것이 새로운 이유는 무엇보다도 역사 연구·서술의 범위와 방법론, 그리고 해석의 차원에서 특정 집단중심주의(ethnocentrism), 그 중에서도 유럽중심

1) "새로운 세계사", 혹은 "지구사"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예컨대 Ross E. Dunn, ed., *The New World History: A Teacher's Companion*, New York: Bedford/St. Martin's, 2000; Bruce Mazlish, Ralph Buultjens, eds., Conceptualizing Global History, Boulder: Westview Press, 1993 참조. 또 일부에서는 세계사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한다. 국내에서도 "새로운 세계사", "지구사", "글로벌 히스토리" 등의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차하순, 「새로운 세계사의 조건」, 조지형, 강선주 외 지음, 『지구화 시대의 새로운 세계사』, 혜안, 2008, pp. 21-37; 조지형, 「지구사란 무엇인가?」, 『지구화 시대의 새로운 세계사』, pp. 39-74; 김원수, 「글로벌 히스토리의 도전: 세계화의 역사화와 역사들의 세계화」, 『지구화 시대의 새로운 세계사』, pp. 75-101. 또한 한국서양사학회 엮음, 『유럽중심주의 세계사들을 넘어 세계사들로』, 푸른역사, 2009 참조. 여기서는 최근 전개되고 있는 연구/서술 경향을 이전의 것과 구분하기 위해 "지구사"란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주의를 넘어서 인간 삶을 지구적 차원에서 차별과 편견 없이 담아내는 균형 잡힌 보편사를 지향한다는 데 있다.[2] 이 과정에서 지구사를 둘러싼 논의는 역사연구에서의 유럽중심주의의 문제를 다시 논란의 중심에 올려놓는다. 유럽중심주의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그것도 역사학 분야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지구사처럼 역사학이 그 관심을 전 지구적 차원으로 확장하고 통합적인 해석을 시도하려 할 때 유럽중심주의의 문제는 더욱 예리하게 부각된다. 무엇보다도 이 글은 유럽중심주의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지구사의 한계와 가능성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구사에 대한 관심을 촉발한 요인들은 많다.[3] 그 가운데 인간, 자본, 상품, 문화, 질병 등이 지역, 민족국가의 좁은 범위를 넘어 전지구적으로 이동/전파/교류되는 현상과 더불어 지구온난화 같은 기후변화는 더 이상 협소한 인식 틀로는 인간의 삶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인류 전체를 파국으로 몰아넣을지도 모를 갈등과 위기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는 자각을 낳았다. 이 점에서 최근의 지구사 논의는 "지구화(globalization)", 그리고 "지구적 의식(global awareness)"의 역사학적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오랫동안 등한시되던 생물학, 생태학, 지질학, 우주론 등 자연과학의 성과에 역사학자들이 조금씩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함으로써 인문학과 자연과학 사이의 오래된 균열의 틈이 조금씩 메워지는 현상이나, 한동안 강고했던 민족국가나 문명권의 경계를 허물고 인간의 복잡다단한 삶을 한데 묶을 수 있는 역사 서술의 가능성이 활발하

---

2) "Eurocentrism"은 서구(西歐)중심주의라는 표현보다는 더 흔히 사용되는 유럽중심주의로 번역한다. 물론 유럽중심주의의 범주에는 미국의 경우도 포함된다. 이 점에서 유럽중심주의보다는 구미(歐美)중심주의가 의미상 더 정확한 역어일 수 있다.

3) Raymond Grew, "Expanding Worlds of World History" *Journal of Modern History* 78, 2006, pp. 878-881.

게 모색되고 있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지구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존재조건이며", "지구사적 인식과 이해 없이 우리는 자연과 인류와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단언이 설득력을 얻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일 것이다.[4]

그러나 지구사의 현재와 미래를 가로막는 장애는 한둘이 아니며 그것도 쉬운 상대가 아니다. 먼저 지구사가 진지한 연구 분야가 될 수 없다는 의구심이 그것이다.[5] 세상에 존재했거나 존재하는 천차만별의 인간 삶을 두루 섭렵하기 위해서는 일단 역사가는 얼마나 많은 언어에 능통해야 하는가? 일차사료에 토대를 둔 역사가의 연구가 얼마나 넓은 영역을 다룰 수 있을까?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지구사는 어쩔 수 없이 대부분 다른 역사가의 연구와 다른 분야의 성과에 기댄 종합화 정도의 수준에 그치는 것은 아닌가? 그러므로 지구사는 연구보다는 교육에 적합한 프로젝트는 아닌가?

지구사의 가능성에 대한 이러한 의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역시 유럽중심주의와 관련되어 있다. 지구사가 유럽중심주의를 극복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는 자기규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세련된 방식으로 유럽중심주의를 강화한다는 혐의가 그것이다. 이러한 혐의에서 생각보다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역사적으로 깊은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15세기 이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보여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야말로 그와 같은 의구심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1930년대까지 지구 육지 표면의 84.6%가 식민지거나 식민화를 거쳤다. 오로지 아라비아, 페르시아, 아프카니스탄, 몽골, 티벳, 중국, 샴(Siam), 그리고 일본만이 유럽의 공식적 지배를

4) 조지형, 「지구사란 무엇인가」, p. 74.

5) 예컨대 Vinay Lal, "Unhitching the Disciplines: History and the Social Sciences in the New Millenium", *Futures* 34, 2002, p. 11.

받지 않았을 뿐이다.[6] 이렇게 보면 근대 유럽의 식민주의는 그 자체로 하나의 지구적 현상이었다. 도식적으로 말해 본다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인간 삶의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유럽적인 것이 글로벌(지구적)한 것, 따라서 보편적인 것이 된 반면 비유럽적인 것은 로컬(지역적)한 것, 따라서 특수한 것이 되는 데 식민주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주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 만약 보편으로 작동하는 유럽중심주의의 헤게모니와 역동성이 식민주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면, 특수한 것, 지역적인 것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보편사로서의 지구사는 유럽중심주의의 또 다른 유형일 수 있으며 그 어떤 경우에라도 그것은 오히려 더 세련된 형태의 식민주의의 역사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보편으로 작동하는 유럽중심주의를 넘어서지 않고는 진정한 의미의 지구사는 "고상한 꿈"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받아들이고 나면 당장 다가서는 장벽은 무엇이 유럽중심주의인가 하는 난제이다. 무엇보다도 보편으로서의 유럽중심주의는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편재하면서 모든 현상의 기본 원리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다. 식민화를 통해 유럽적인 것이 지배 헤게모니로 확립되는 과정에서 비유럽인들의 마음 속 깊이 내면화되었을 뿐 아니라 유럽적인 것과 비유럽적인 것이 서로 뒤섞이면서 둘 사이의 확연한 구분이 불가능한 수많은 변종과 혼종을 만들어냈다. 그러므로 유럽중심주의의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막상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7]

---

6) Ania Loomba, *Colonialism/Postcolonialism*, London: Routledge, 2005, p. 3. 또한 위르겐 오스터함멜 지음, 박은영/이유재 옮김, 『식민주의』, 역사비평사, 2006 참조.

7) Arif Dirlik, "History without a Center? Reflections on Eurocentrism", in Eckhardt

이 글은 추상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유럽중심주의라는 잣대를 활용하여 지구사를 둘러싼 논의에서 조금이라도 설득력 있는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유럽중심주의가 무엇인가를 묻기보다는 그 작동 방식과 소재를 추적해보려는 시도가 낫겠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유럽중심주의의 작동 방식은 선별과 배제와 무시인가 아니면 그것은 서열과 차별을 합리화하기 위해 오히려 가능한 한 모든 것을 포괄하는가? 지구사는 어떠한 방식으로 유럽중심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가? 근대 역사학 자체가 유럽의 산물이자 유럽중심주의의 핵심 매개체라면, 따라서 유럽중심주의의 소재는 근대 역사학 자체라면, 근대 역사학 자체를 버리지 않고는 지구사는 고사하고라도 비유럽인들의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아니면 역사학 자체가 당초 유럽의 것이므로 유럽인의 과거 인식 방법으로 되돌려 놓아 역사학을 변방화하고 제각기 각자의 방식으로 과거에 대면하도록 해야 할 것인가? 과거 인식의 이러한 다양화가 조화될 수 없는 파편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인류 전체의 삶을 아우르는 호모 사피엔스의 역사 역시 이룰 수 없는 "고상한 꿈"이 아닌가?

필자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러한 해결책을 알고 있지도 못하다. 다만 지구사 논의를 둘러싼 몇몇 역사가들의 상반된 생각과 관점을 필자 나름의 방식으로 정리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만족하려 한다. 만약 이 글을 통해 유럽중심주의와 지구사를 둘러싼 논란의 구조가 조금 더 첨예하게 드러나고 이를 통해 지구사의 한계 뿐 아니라 그 가능성이 좀 더 명확하게 밝힐 수 있다면 이 글은 그 나름대로의

Fuchs, Benedikt Stuchtey, eds., *Across Cultural Borders: Historiography in Global Perspective*,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2, pp. 247-284.

목적을 달성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2. 반(反)유럽중심적 유럽중심주의

지구사의 선구자로 널리 인정받는 맥닐(William H. McNeill)은 인간 집단 사이의 치명적 대립을 유발할 "편협한(parochial)" 역사학 대신 인류 전체의 시련과 승리를 모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ecumenical)" 역사학을 계발하는 것이 역사가의 도덕적 의무임을 밝히면서도 정작 그와 같은 역사학의 구체적 모습에 대해서는 "인간의 복잡성과 다양성에 충분한 여지를 남기는" 것이라는 정도의 언급에 그침으로써, 이상과 현실 사이의 일치가 쉽지 않음을 넌지시 드러냈다.[8] 아마도 제대로 된 역사가라면 맥닐의 도덕적 이상에 대해 토를 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구체적인 연구와 서술의 차원에 이르면 사정은 크게 달라진다. 도대체 지구적 시민의식을 북돋우는 지구사는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9]

일단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대답은 그동안 배제되었던 역사의 행위자(agent)들을 지구적 전망에서 가능한 한 광범하게 포괄하는 방법일 것이다. 강자의 논리 앞에서 이제까지 그 역사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인류학자 울프(Eric Wolf)의 유명한 표현을 빌리면 "역사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태도는 얼핏 보아 인류 역사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인정하며 지구적 평화에 이바지하는 "보편적" 역사의 이상에 잘 부합되는 입장처럼 보인다.[10] 그

---

8) William H. McNeill, "Mythistory, or Truth, Myth, History, and Historians", American Historical Review 91, 1986, p. 7. 또한 같은 저자의 "The Changing Shape of World History", *History and Theory* 34, 1995, pp. 8-25 참조.

9) 이에 대한 가장 최근의 맥닐의 답변은 윌리엄 맥닐/존 맥닐 지음, 김우영/유정희 옮김, 『휴먼 웹』, 이산, 2007을 볼 것.

러나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인류 역사를 추동했던 수많은 행위자들을 최대한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구사의 모습이라는 주장 역시 심각한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먼저 유럽중심주의에서 포괄과 배제의 두 범주는 겉보기처럼 서로 상충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딜릭(Arif Dirlik)의 주장처럼 유럽중심주의의 작동 방식은 배제가 아니라 가능한 한 모든 것을 포괄하려는 데 그 특징이 있다는 논리가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 모든 것을 포괄하려는 유럽중심주의는 분류와 서열화의 과정을 거쳐 자신과 타자, 유럽과 비유럽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그 성격을 본질화하는 방식으로 전 세계에 걸친 다양한 사람들의 삶 전체를 재단하고 정리하려 한다.[11] 이처럼 유럽중심주의의 작동에서 포괄은 좀 더 세련되고 교묘한 방식의 배제를 정당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헌팅턴(Samuel P. Huntington)과 랜디스(David Landes)와 같은 저명한 학자들의 저작에서 이러한 유럽중심주의의 작동방식의 대표적인 예를 찾을 수 있다.[12] 이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명과 문화를 역사 서술에서 최대한 포괄하려 했다는 점에서, 예컨대 아프리카는 어둠에 가려져 있고 "어둠은 역사학의 대상이 아니다"는 강변으로 아프리카의 역사성을 부정했던 영국의 저명한 역사가 트레버-로퍼(Hugh Trevor-Roper)에 비해 훨씬 덜 유럽중심주의적으로 보인다.[13] 그러나 이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다

---

10) Eric Wolf, *Europe and the People without Histo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2.

11) Arif Dirlik, "History without a Center? Reflections on Eurocentrism", p. 252.

12) Samuel P.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New York: Simon & Schuster, 1996; David S. Landes, *Wealth and Poverty of Nations: Why Some Are So Rich and Some So Poor*, New York: Norton, 1998.

13) Hugh Trevor-Roper, *The Rise of Christian Europe*, London: Thames and

양한 문명과 문화를 본질화함으로써 서로 섞일 수 없는 순수한 실체로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한편으로는 유럽의 지배를 합리화할 뿐 아니라 "노동, 근면, 정직, 인내, 끈기"로 요약되는 유럽 문명을 다른 문명의 위협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이다.[14]

다른 한편 최근 지구사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연구들은 시각과 접근방식에서 전자의 경우와는 궤를 달리함으로써 얼핏 보아 유럽중심주의를 효과적으로 극복한 것처럼 보인다. 종속이론의 대표자였으며 사망하기 직전까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유럽중심주의의 극복에 매달렸던 프랑크(Andre Gunder Frank)의 『리오리엔트』뿐 아니라 소위 캘리포니아 학파라 불리는 포메란츠(Kenneth Pomeranz)와 빈 웡(Roy Bin Wong)의 탁월한 연구는 중국(과 아시아)에 초점을 맞추어 18세기까지 유럽과 비교할 때 시장경제와 부의 수준에서 유럽에 뒤지지 않았던(혹은 앞섰던) 중국이 19세기를 기점으로 상황이 바뀐 이유를 설득력 있게 밝힌다.[15] 동시에 이들 연구는 19세기 유럽의 눈부신 경제발전이 가능했던 근거를 식민지를 비롯한 지구적 맥락 안에 놓음으로써 그것을 오로지 유럽의 내적 요인에서 설명하던 기존 연구의 유럽중심주의를 효과적으로 논파한다.

그러나 이 두 연구가 세계 자본주의 경제 발전에서 한동안 도

Hudson, 1965, pp. 9-11.

14) Landes, *Wealth and Poverty of Nations*, p. 516, 523.

15) 안드레 군더 프랑크 지음, 이희재 옮김, 『리오리엔트』, 이산, 2003; Kenneth Pomeranz, *The Great Divergence: China, Europe and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Ec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 Roy Bin Wong, *China Transformed: Historical Change and the Limits of European Experienc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또한 유재건, 「유럽중심주의와 자본주의」, 『유럽중심주의 세계사들을 넘어 세계사들로』, pp. 230-257 참조.

외시되었던 중국과 아시아의 역할을 더 큰 맥락에서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시각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주도 아래 만들어진 오늘날의 자본주의 체제를 비롯한 근대성 자체를 역사적 흐름의 당연한 귀결로 인정하는 목적론의 함정에 빠졌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이들 연구의 출발점은 한 때 유럽과 비슷하거나 그것을 능가했던 중국이 왜 낙후하게 되었는가하는 질문이지만 이러한 질문법 자체가 목적론을 함축하고 있다.[16]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이 날카롭게 지적했듯이 이들의 연구는 첫째, "다른 문명들도 유럽이 행한 것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어느 시점에선가 유럽이 지정학적 권력을 사용하여 다른 지역의 그 과정을 중지시켰다"는 논리, 그리고 둘째, "유럽이 행한 것은 다른 곳에서 오랫동안 해온 것의 지속에 불과하며, 일시적으로 유럽인들이 전면에 나서게 되었을 뿐이라는" 논리에서 그리 멀지 않으며 이 점에서 월러스틴이 말하는 "반유럽중심적 유럽중심주의"의 덫을 벗어나기 어렵다.[17]

포메란츠와 빈 웡의 연구가 입증하듯이, 그것이 무엇이든 경계를 넘나들며 벌어지는 교류와 접촉, 그리고 상호작용과 네트워크의 역사는 지구적 관점에서 이제까지 무시되었던 다양한 행위자들을 복원·재평가함으로써 지구사의 유력한 연구방법론의 자리를 굳히고 있다.[18] 그것은 또한 "초국가적(transnational) 역사"[19], "초

16) Arif Dirlik, "Contemporary Perspectives on Modernity: A Critical Discussion", *Sungkyu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8, 2008, pp. 89-103.

17) 이매뉴얼 월러스틴 지음/백승욱 옮김, 『우리가 아는 세계의 종언: 21세기를 위한 사회과학』, 창작과 비평사, 2001, p. 248.

18) 예컨대 Jerry H. Bentley, "Myths, Wagers, and Some Moral Implications of World History", *Journal of World History* 16, 2005, pp. 51-82; idem, "Beyond Modernocentism: Toward Fresh Visions of the Global Past", in Victor H. Mair, ed., *Contact and Exchange in the Ancient World*,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6, pp. 17-29.

19) Akira Iriye, "Transnational History", *Contemporary European History* 13, 2004,

(transcultural)문화적 역사"[20], "연결된(connected) 역사", "교차된·얽힌(croisée) 역사"[21] 등의 이름으로 세분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계를 넘나드는 연구들은 상품·기술·인구·자본 등 비교적 쉽게 흐름을 추적할 수 있고 또 계량화할 수 있는 분야에 편중되고 있다는 비판 뿐 아니라, 이미 지적한 바 있듯이 그러한 교류·접촉·상호작용의 영향 혹은 결과를 해석하는 부분에서는 지구상에 존재했던 다양한 행위자들이 또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현재의 세계질서(혹은 지구화) 형성에 이바지했다는 방식으로 귀결되기 싶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 인류 역사가 도달한 필연적 귀결이라면 이는 19세기 이후 유럽의 헤게모니와 그것이 다른 세상의 가능성/잠재성을 차단함으로써 이룩한 현재의 세계를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듦으로써 유럽중심주의를 정당화할 뿐 아니라 유럽중심주의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을 벗어나기 어렵다.

뿐만 아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과거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하나의 방식인 유럽 역사학의 인식론에는 전혀 이의를 달지 않는다. 역사학자들이 역사학 자체를 역사화하지 않으려는 모순된 현상은 앞으로 더 살펴보겠지만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문제를 단순화하면 이렇다. 유럽에서 탄생한 역사학이 비유럽의 과거 연구에도 적용되는 것이 정당한가? 아니면 유럽의 역사학은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적 한계를 넘어 보편화되었는가? 지금까지 언급한 연구 경향을 견지하는 사람들은 명백히 후자의 입장에

---

pp. 211-222; "AHR Conversation: On Transnational History", *American Historical Review* 111, 2006, pp. 1441-1464 참조.

20) Dominic Sachsenmaier, "World History as Ecumenical History?", *Journal of World History* 18, 2007, p. 469.

21) Michael Werner, Bénédicte Zimmermann, "Beyond Comparison: Histoire Croisée and the Challenge of Reflexivity", *History and Theory* 45, 2006, pp. 30-50.

서 있다. 이들은 영국의 역사가 버크(Peter Burke)의 다음과 같은 주장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동의하고 있는 듯하다. 그에 의하면 유럽의 역사학은 19세기와 20세기에 걸친 여타 지역의 다양한 "토착적 전통"과의 만남으로 "서유럽 역사학의 특수성들이, 없어진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약화되었으며" 따라서 같은 방식으로 연구하는 "역사가들의 지구적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22]

만약 이처럼 서구 역사학은 이제 더 이상 유럽적(따라서 지역적)이 아니라 보편성을 얻었다면 문제의 초점은 다만 어떻게 하면 지구사의 광대한 영역 속에서 비유럽의 역사적 행위자들의 정당한 역할을 "인정"하는가에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로 보일 수 있다.[23] 이 경우 지구사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은 전 세계의 다양한 역사적 행위자들의 기여를 감싸 안는 "인정의 정치(politics of recognition)"이며[24] "지구적 다문화주의(global multiculturalism)"여야 할 것이다.[25] 그러나 다문화주의가 다양한 문화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문화 복수주의의 기치 아래 문화를 본질화함으로써 문화 간의 소통을 부정할 뿐 아니라 차이의 이름으로 차별과 서열을 정

---

22) Peter Burke, "Western Historical Thinking in a Global Perspective-10 Thesis", in Jörn Rüsen, ed., *Western Historical Thinking: An Intercultural Debate*, New York: Berghahn Books, 2002, p. 17. 또한 Dipesh Chakrabarty, "A Global and Multicultural 'Discipline' of History?" *History and Theory* 45, 2006, pp. 101-109 참조.

23) Jörn Rüsen, "How to Overcome Ethnocentrism: Approaches to a Culture of Recognition by History in the Twenty-First Century", *History and Theory* 43, 2004, pp. 118-129.

24) Charles Taylor, "Politics of Recognition", in Amy Gutmann, ed., *Multiculturalism: Examining the Politics of Recogni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pp. 25-73.

25) Arif Dirlik, *Global Modernity: Modernity in the Age of Global Capitalism*, Boulder: Paradigm Publishers, 2007, pp. 79-85.

당화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처럼 “지구적 다문화주의”를 지향하는 지구사 역시 유럽중심주의를 반대하면서도 그것을 위해 뒷문을 살짝 열어 놓는다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역사가들 가운데 유럽중심주의라는 표현 대신 ‘집단중심주의(ethnocentrism)’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하는 것은 그저 우연이 아니다.[26] 크게 보아 유럽중심주의가 예컨대 아프리카중심주의, 아시아중심주의, 인도중심주의, 중국중심주의, 이슬람중심주의 등과 더불어 특정 ‘집단중심주의’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집단중심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해 유럽중심주의를 상대화하는 것은 다른 중심주의에 비해 오늘날 보편으로까지 그 헤게모니를 확장한 유럽중심주의의 특수성의 문제를 정면으로 대면하지 않으려는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데 있다.

3. 역사학의 대안과 대안적 역사학

지구사를 둘러싼 논의는 다른 한편에서 “역사가들의 지구적 공동체”가 구성되었다는 버크의 전망을 지나친 낙관론으로 만든다. 사실상 지구사는 유럽 역사학의 인식론적 타당성의 문제를 논란의 전면에 부각시키는 역할을 했으며 “역사가들의 지구적 공동체”에 드러난 균열에 주목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균열은 언뜻 보기에 미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의 함의는 근본적이며 심각하다. 균열의 목소리는 주로 ‘변방’에서, 혹은 ‘중심’이라 하더라도 ‘변방’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서 나온다. 최근

26) Jörn Rüsen, “How to Overcome Ethnocentrism: Approaches to a Culture of Recognition by History in the Twenty-First Century”, pp. 118-129.

노르웨이의 한 아프리카사가는 유럽의 역사학은 근본적으로 유럽중심주의적이므로 아프리카(따라서 논리적으로 비유럽) 역사의 특수성과 개별성을 말살할 뿐임을 강력히 경고한다.[27] 그러나 더 강경한 목소리는 인도계 학자들에게서 들린다. 이들은 유럽에서 만들어져 전 세계적으로 그 헤게모니를 장악한 역사학이야말로 유럽중심주의의 중심축이다. 영국의 오랜 식민 지배의 경험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은 가볍게 넘기기 어렵다.

인도의 저명한 사상가 난디(Ashis Nandy)의 주장은 단도직입적이다.[28] 그에게 (유럽의) 역사학은 19세기와 20세기를 거치면서 민족국가, 세속적 세계관, 과학적 합리성, 진보의 이론, 발전주의(혹은 한마디로 근대성)로 무장하고 인도인(비유럽인)들의 과거를 '정복'하려는 지식의 식민주의의 첨병이다. 또한 난디의 표현처럼 유럽 "역사학을 통한" 인도인의 "과거의 정복"으로 건립된 "역사학의 제국"의 지배가 강고한 까닭은 유럽의 역사관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이 특히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부재하기 때문이다.

난디가 보기에 인도인들을 포함해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외부"에서 살았으며 여전히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이들에게 과거가 없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다. 이들 역시 과거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현재와 미래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역사가들과 역사의식으로 구성되는 과거와는 다른 과거를 인식하고 그것에 직면하며 또 그것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심지어 과거에 도달하는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다." 역사학이 과

---

27) Finn Fuglestad, *The Ambiguities of History: The Problem of Ethnocentrism in Historical Writing*, Oslo: Unipub forlag-Oslo Academic Press, 2005.

28) Ashis Nandy, "History's Forgotten Doubles", *History and Theory* 34, 1995, pp. 44-66.

거 연구를 통해 하나의 진실만을 입증하려는 절대주의적 경향을 지닌다면 신화, 전설, 서사시 등과 같은 인도인들의 과거 인식 방식은 열려 있다. 그러므로 역사학의 폐해는 이러한 다른 과거 인식의 방식을 파괴했다는 데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예컨대 아요디야(Ayodhya) 유적을 둘러싼 힌두와 이슬람 사이의 갈등을 역사학이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조장했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고 난디는 말한다.[29]

난디의 주장이 함축하는 바는 특정 과거를 잘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은 대안적 역사학을 모색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학의 대안에 대해 고민하는 일이다. 또한 그것은 각 지역과 문화마다 독자적인 과거의 인식 방식이 존재할 수 있으며 그것을 다시 발굴하고 복원하는 작업이 절실한 과제임을 촉구한다.[30] 그러나 그와 같은 대안을 발견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면 먼저 역사학 자체를 버리는 것이 유럽중심주의의 헤게모니에 저항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식이라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는다. "대부분의 급진적 이론들이 시장에서 팔리고 혁명들은 금융가와 기업가의 경영에 맡겨진 이 세상에서 역사학의 포기는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이단인지 모른다. 왜냐하면 이러한 반항은 오늘날 인류를 억압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교활한 수단이 되어버린 지식의 범주들에 대한 도전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31]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유럽적 역사의식과 역사학이 지배하는 한 진정한 의미의 "지구사"는

---

29) Nandy, "History's Forgotten Doubles", p. 44.

30) Sanjay Seth, "Reason or Reasoning? Clio Or Siva", *Social Text* 22, 2004, pp. 85-101; idem, "Which Past? Whose Transcendental Presupposition?", *Postcolonial Studies* 11, 2008, pp. 215-226.

31) Vinay Lal, "History and the Possibilities of Emancipation: Some Lessons from India", *Journal of the Indian Council of Philosophical Research*, 1996, p. 130, Arif Dirlik, "History without a Center? Reflections on Eurocentrism", p. 277에서 재인용.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것은 기껏해야 "21세기의 가장 두드러진 식민주의적 지식의 유형"에[32] 지나지 않거나 최악의 경우 "문화적 제노사이드"를[33] 초래한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보편화된 유럽 역사학 자체를 버리는 것이 유럽중심주의에서 일단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주장은 그 급진성만큼이나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먼저 그것은 아기를 목욕시키려다 목욕물과 함께 아기를 버리는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닌가? 유럽의 역사학은 우리가 "세계와 그것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사고하는 방식에서" 가려낼 수 없을 정도로 뒤얽힌 채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찬가지로 과거를 대면하는 비역사적이고 독자적이며 고유한 전통의 발굴이 가능하기는 한 것인가? 현재 우리에게 가능한 것은 고유한 전통이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미 "민족, 집단, 종교적 순수성이라는 근대적 개념"에 물들어 때로는 "파시즘의 함축"마저 지닌 것이 될 위험은 없는가? 오히려 역사학은 그 한계들이 적절히 보완될 경우 "근대의 개념"을 효과적으로 해체함으로써 과거에 대한 색다른 사고방식을 복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닌가?[34]

난디에 비해 차크라바르티(Dipesh Chakrabarty)의 "유럽의 변방화" 프로젝트는 역사학의 대안을 찾기보다는 대안적 역사학의 모색에 가깝다.[35] "무지의 불평등(inequality of ignorance)" 혹은 "비대

---

32) Vinay Lal, "Much Ado about Something: The New Malaise of World History", *Radical History Review* 91, 2005, pp. 129.

33) Vinay Lal, "Provincializing the West: World History from the Perspective of Indian History", in Benedikt Stuchtey, Eckhardt Fuchs, eds., *Writing World History 1800-200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p. 289.

34) Arif Dirlik, "History without a Center? Reflections on Eurocentrism", pp. 277-278.

35) Dipesh Chakrabarty, *Provincializing Europe: Postcolonial Thought and*

칭적 무지(asymmetrical ignorance)"라는 표현을 통해 차크라바르티는 역사주의를 그 핵심으로 하는 유럽 역사학의 지배와 보편화 문제를 간략하게 압축한다. 이른바 제3세계의 역사가들은 유럽의 저명한 역사가들의 작업에 늘 관심을 가져지는 것이 마치 의무처럼 되어 있는 반면 유럽의 저명한 역사가들은 제3세계 역사가들의 작업에 대해 그러한 의무감이 느끼지 않는 이러한 "비대칭적 무지"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것은 유럽의 역사가들의 연구대상이나 작업 자체가 현재의 가장 발전된 단계에 해당함으로 비유럽의 역사가들에게 자신들이 따라잡아야 할 미래로 느끼게 만드는 발전론, 목적론적 전제, 한마디로 역사주의의 지배이다. 유럽 역사의식의 핵심인 이러한 역사주의는 사실상 역사학 뿐 아니라 유럽과 비유럽의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논리로 작동하고 있는 것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50년은 족히 걸릴 것이다"라는 식의 익숙한 진단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공간을 시간화하고 유럽과 비유럽의 서열을 시간적으로 배치하는 유럽의 역사주의의 영향력은 보편적이다.

그러므로 도식적으로 말해서 차크라바르티의 "유럽의 변방화" 프로젝트는 역사학적 차원에 일단 국한해 보면 유럽의 역사주의에서 벗어난 역사학의 모색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역사학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하는 문제는 해결하기 쉽지 않다.[36] 역사주의에서 벗어난 역사학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차

Historical Differe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 차크라바르티의 역사주의 비판에 대해서는 김택현, "제국주의, 역사주의, '차이의 역사(학)'", 『유럽중심주의 세계사들을 넘어 세계사들로』, pp. 258-293 참조.

36) 예컨대 Carola Dietze, "Toward a History on Equal Terms: A Discussion of Provincializing Europe", History and Theory, 47, 2008, pp. 69-84; Dipesh Chakrabarty, "In Defense of Provincializing Europe: A Response to Carola Dietze", History and Theory 47, 2008, pp. 85-96.

크라바르티는 자신의 저서에서 인도사의 몇 가지 흥미로운 예를 통해 역사주의의 촘촘한 그물망에서 벗어난 역사서술의 가능성에 도전하지만 비판자들의 눈에 그것은 파편화된 일화들의 집합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37] 차크라바르티의 딜레마는 특수와 보편은 배타적이라기보다는 상호적인 것이라는 상식을 다시 상기시킨다. 그러나 비록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차크라바르티에게서 보편적인 것의 가능성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유럽의 제국주의가 끝난 자리에 유럽의 사상은 선물"이라는 차크라바르티의 언급에서도 나타나듯, 그가 난디와는 달리 근대성 자체를 전적으로 거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38] 그러므로 좀 더 폭넓은 동의에 기초한 지구사의 가능성이 그에게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와 같은 동의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는가 하는 것일 것이다.

4. 맺음말: 호모 사피엔스의 역사

2004년 11월 영국 학술원 세미나 폐회 연설에서 홉스봄(Eric J. Hobsbaum)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상대주의가 역사학을 무력화시켰다고 비난하면서 "호모 사피엔스의 역사"가 절실히 필요함을 역설했다.[39] 이는 하나의 종(種)으로서의 인류 전체의 삶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지구사의 가능성과 정당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실상 이전의 세계사·보편사를 대신할 지구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보

37) Barbara Weinstein, "History Without a Cause? Grand Narratives, World History, and the Postcolonial Dilemma", International Review of Social History 50, 2005, pp. 71-93.

38) Chakrabarty, Provincializing Europe, p. 255.

39) 에릭 홉스봄, 「상대주의를 넘어」,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09년 5월호.

편의 문제를 새롭게 사고해야 한다는 자각이 홉스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월러스틴 역시 "유럽적 보편주의"를 대신할 "보편적 보편주의(universal universalism)"의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보편적 보편주의"는 "사회적 현실에 대한 본질주의적 성격 부여를 거부하고, 보편적인 것과 특수한 것 모두를 역사화하며, 이른바 과학적인 것과 인문학적인 것을 단일한 인식론으로 재통합하고 약자에 대한 강자의 '개입'을 위한 모든 정당화의 근거들을 고도로 객관적이고 지극히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어떤 것이다.[40]

이러한 "보편적 보편주의"는 어떻게 가능하며 그것에 근거한 지구사, 혹은 그 한 형식으로서 "호모 사피엔스의 역사"는 어떤 모습을 띠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한 답변은 현재로서는 대단히 어려울 뿐 아니라, 있다 하더라도 잠정적일 수밖에 없다. 필자는 2009년에 출판된 차크라바르티의 흥미로운 한 논문과 크리스찬(David Christian)의 이른바 "거대사(Big History)" 프로젝트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비평으로 그 답변을 대신하고자 한다.

「역사의 기후: 네 가지 테제」라는 제목의 글에서 차크라바르티는 새로운 보편과 그것에 기초한 지구사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거론한다.[41] 이러한 새로운 보편과 그것에 기반한 역사를 그는 "부정적 보편사(negative universal history)"라 조심스럽게 이름 붙인다. 그것이 "부정적"인 이유는 어떤 "파국에 대한 공감대에서 나오는 보편"에서 출발하는 역사의식이기 때문이지만 새로운 보편인 이유는 헤겔식의 역사주의적 보편과는 달리 개별을 포섭해버리지

---

40) 이매뉴얼 월러스틴 지음/김재오 옮김, 『유럽적 보편주의: 권력의 레토릭』, 창작과 비평사, 2008, p. 138.

41) Dipesh Chakrabarty, "The Climate of History: Four Theses", Critical Inquiry 35, 2009, pp. 197-222. 또한 같은 저자, "The Public Life of History: An Argument out of India", *Postcolonial Studies* 11, 2008, pp. 169-190 참조.

않은 채 “인간의 총체성”, 혹은 “하나의 우리(an us)”의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이다.[42] 그리고 그러한 파국의 공감대의 근원을 차크라바르티는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기후 변화에서 찾는다. 그는 최근 지질학자들의 논의를 토대로 인간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 적극적인 행위자일 뿐 아니라 “지질학적 행위자(geological agent)”임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많은 과학자들은 인류가 적어도 근대 이후 내내 화석 연료를 집단적으로 소비하고 가축을 산업적으로 활용하여 온실가스(greenhouse gas)가 대기 중에 과도하게 쌓이게 함으로써 지구 온난화라는 심각한 환경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데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크라바르티가 인용하고 있는 한 과학사가의 진술은 단호하다. 인류는 “그토록 많은 나무를 자르고 수 십 억 톤에 달하는 화석 연료를 태움으로써 진실로 지질학적 행위자가 되었다. 우리는 우리 환경의 화학을 변화시켜 해수면을 높이고 빙하를 녹이며 기후를 변화시켰다. 달리 생각할 방도는 어디에도 없다.”[43]

차크라바르티가 볼 때 현재 지구가 직면한 기후 변화와 그것이 초래할 재앙의 역사학적 함의는 크다. 그의 표현을 빌리면 “과학자들이 기후 변화에 대해 밝히고 있는 바는 통상 역사학을 지탱하는 인간적인 것에 대한 생각 뿐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전후 탈식민화와 지구화의 시나리오에 대응하여 포스트-식민주의, 포스트-제국주의 역사가들이 전개했던 분석 전략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44] 그것은 환경사의 영역을 훨씬 넘어선 역사의

---

42) Dipesh Chakrabarty, “The Climate of History: Four Theses”, p. 222.

43) Naomi Oreske, “The Scientific Consensus on Climate Change: How Do We Know We’re Not Wrong?” in Joseph F. C. Dimento, Pamela Doughman, eds., *Climate Change: What It Means for Us, Our Children, and Our Grandchildren*, 2007, p. 93, Dipesh Chakrabarty, “The Climate of History: Four Theses”, p. 206에서 재인용.

44) Dipesh Chakrabarty, “The Climate of History: Four Theses”, p. 198.

식을 요구한다. 환경사가 오래전부터 인간을 생물학적 행위자로 인정하지만 지질학적 범주에서 인간이 행사한 영향력을 고려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환경사에서 기후는 여전히 인간의 영역 밖에 위치한다. "인간은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생물학적 행위자이고 늘 그러했다. 인간의 역사에서 인간이 생물학적 행위자가 아니었던 적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적으로 집단적으로만 지질학적 행위자가 된다. 즉, 지구 자체에 충격을 가할 정도로 수가 증가하고 기술을 발명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다."[45] 나아가 이처럼 인간이 지질학적 행위자임을 인정하는 것은 인간 자체를 자연적인 힘 가운데 하나로 간주함으로써 유럽 사상의 오랜 전제였던 인간과 자연 사이의 확고한 구분을 와해시킨다. 이는 동시에 인간의 역사와 자연의 역사가 하나로 통합될 가능성을 연다. 이제 "인간은 지질학적 의미에서 자연적인 힘이다. 서구(그리고 현재 보편적인) 정치사상의 근본적인 가정은 …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다."[46]

차크라바르티에 의하면 지질학적 행위자로서, 그리고 기후 변화가 가져올 파국 앞에서 인간은 하나가 될 수 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른 종과 마찬가지로 인간 종이라는 인식이 가능할 뿐 아니라 필요한 이유는 그 파국의 기원과 그 결과가 유례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자본주의의 위기는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탈출구를 제공하고, 심지어 핵전쟁조차 핵보유국의 권력자들의 판단에 좌우될 수 있다. 그러나 기후의 위기는 의도하지 않았던 인간 행위의 결과이며 동시에 인간 모두에게 피할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차크라바르티가 볼 때 이러한 심각한 위기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의 종이라는 자각과 함께 어떻게 오늘과 같은 상황에 도

45) *Ibid.,* pp. 206-207.
46) *Ibid.,* p. 207.

달하게 되었는지, 그 위기를 벗어날 방안이 무엇인지를 함께 모색하는 새로운 유형의 보편사(따라서 지구사)가 가능하며 또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이다.

비슷한 문제의식에서 호주의 역사가 크리스천은 빅뱅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를 조감하는 "거대사" 분야를 개척했다.[47] 우주의 탄생에서 시작하는 크리스천의 거대 서사는 천체물리학, 지질학, 지구과학 등의 자연과학과 역사학을 연결시키며 선사시대와 역사시대 사이의 오래되고 강고한 구분을 철폐하려 한다. 이러한 거시적 시각은 시대구분에서도 반영된다. 수 십 만년에 걸친 시간대가 "생명체가 없는 우주", "지구에서의 삶", "초기 인간의 역사", "충적세", "근대" 등의 5개의 시대로 구분되어 있을 뿐이다. 크리스천의 "거대사" 프로젝트는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이 확산되고 있다. 그 이유는 많겠지만 시야를 엄청나게 확장함으로써 인간을 하나의 종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효과일 것이다. 그것은 마치 세상의 많은 창조신화가 그러하듯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또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좁은 시간대를 다루는 '작은' 역사에서는 도저히 찾기 어려운 전망을 가능하게 해주는 유력한 방식이기 때문일 것이다. UCLA의 한 저명한 지구과학자의 평가처럼 "거대사의 힘"은 전통적인 역사학에서는 엄두도 낼 수 없을 정도의 심원한 시간과 공간의 감각을 느끼게 함으로써 "우리가 당면한 가공할 문제들 앞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계를 다른 방식으로 보게" 해주는 데 있다.[48]

---

47) David Christian, *Maps of Time: An Introduction to Big Histo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4; 데이비드 크리스천 지음, 김서형/김용우 역, 『거대사: 세계사의 새로운 대안』, 서해문집, 2009. 또한 David Christian, "World History in Context", *Journal of World History* 14, 2003, pp. 437-458. "거대사"에 대한 최근 논의에 대해서는 전자저널 *World History Connected* 6, 2009에 실린 "Forum on Big History"를 볼 것.

48) Walter Alvarez, "A Geological Perspective on Big History", *World History*

차크라바르티와 크리스천이 제시하는 지구사의 전망은 여전히 미완의 프로젝트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보편사로서의 지구사의 문제가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한 과제임을 잘 보여준다. 이들의 작업이 어떤 방향으로 구체화되고 정교화될 것인지는 더 지켜보아야 할 일이다. 그러나 유럽의 보편주의를 넘어 "보편적 보편주의"에 입각한 지구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특수의 이름으로 기준과 방향 감각을 상실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동시에 보편의 이름으로 특수를 말살하지 않는, 보편과 특수, 그리고 글로벌과 로컬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식의 추상적 언급으로 이 글을 끝맺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필자의 능력 때문이겠지만 유럽중심주의를 넘어서 새로운 보편사로서의 지구사에 도달하는 길이 그만큼 어렵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다.

참고문헌

데이비드 크리스천, 김서형/김용우 역, 『거대사: 세계사의 새로운 대안』, 서해문집, 2009.

안드레 군더 프랑크 지음, 이희재 옮김, 『리오리엔트』, 이산, 2003.

위르겐 오스터함멜, 박은영/이유재 옮김, 『식민주의』, 역사비평사, 2006.

에릭 홉스봄, 「상대주의를 넘어」,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09년 5월호.

윌리엄 맥닐/존 맥닐, 김우영/유정희 옮김, 『휴먼 웹』, 이산, 2007.

이매뉴얼 월러스틴, 백승욱 옮김, 『우리가 아는 세계의 종언: 21세기

Connected 6, 2009, 44 pars. 26 Oct. 2009 <http://worldhistoryconnected.press.illinois.edu/6.3/alvarez.html>.

를 위한 사회과학』, 창작과 비평사, 2001.
이매뉴얼 월러스틴, 김재오 옮김, 『유럽적 보편주의: 권력의 레토릭』, 창작과 비평사, 2008.
조지형 · 강선주 외 지음, 『지구화 시대의 새로운 세계사』, 혜안, 2008.
한국서양사학회 엮음, 『유럽중심주의 세계사들을 넘어 세계사들로』, 푸른역사, 2009.

"AHR Conversation: On Transnational History", American Historical Review 111, 2006, pp. 1441-1464.
Bentley, Jerry H. "Myths, Wagers, and Some Moral Implications of World History", *Journal of World History* 16, 2005, pp. 51-82.
Bentley, Jerry H. "Beyond Modernocentism: Toward Fresh Visions of the Global Past." In Victor H. Mair, ed., *Contact and Exchange in the Ancient World*,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6, pp. 17-29.
Burke, Peter. "Western Historical Thinking in a Global Perspective-10 Thesis." In Jörn Rüsen, ed., *Western Historical Thinking: An Intercultural Debate*, New York: Berghahn Books, 2002, p. 17.
Bin Wong, Roy. *China Transformed: Historical Change and the Limits of European Experienc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Chakrabarty, Dipesh. *Provincializing Europe: Postcolonial Thought and Historical Differe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
Chakrabarty, Dipesh. "A Global and Multicultural 'Discipline' of History?" *History and Theory* 45, 2006, pp. 101-109.
Chakrabarty, Dipesh. "In Defense of Provincializing Europe: A Response to Carola Dietze", *History and Theory* 47, 2008, pp. 85-96.
Chakrabarty, Dipesh. "The Public Life of History: An Argument out of India", *Postcolonial Studies* 11, 2008, pp. 169-190

Chakrabarty, Dipesh. “The Climate of History: Four Theses”, *Critical Inquiry* 35, 2009, pp. 197-222.

Christian, David. *Maps of Time: An Introduction to Big Histo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4)

Christian, David. “World History in Context”, *Journal of World History* 14, 2003, pp. 437-458.

Dietze, Carola. “Toward a History on Equal Terms: A Discussion of Provincializing Europe”, *History and Theory*, 47, 2008, pp. 69 -84.

Dirlik, Arif. “History without a Center? Reflections on Eurocentrism.” In Eckhardt Fuchs, Benedikt Stuchtey, eds., *Across Cultural Borders: Historiography in Global Perspective*,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2, pp. 247-284.

Dirlik, Arif. *Global Modernity: Modernity in the Age of Global Capitalism*, Boulder: Paradigm Publishers, 2007

Dirlik, Arif. “Contemporary Perspectives on Modernity: A Critical Discussion”, *Sungkyu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8, 2008, pp. 89-103.

Dunn, Ross E. ed., *The New World History: A Teacher's Companion*, New York: Bedford/St. Martin's, 2000.

Fuglestad, Finn. *The Ambiguities of History: The Problem of Ethnocentrism in Historical Writing*, Oslo: Unipub forlag-Oslo Academic Press, 2005.

Grew, Raymond. “Expanding Worlds of World History” *Journal of Modern History* 78, 2006, pp. 878-881.

Huntington, Samuel P. *The Clash of Civilization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New York: Simon & Schuster, 1996.

Iriye, Akira. “Transnational History”, *Comtemporary European History* 13, 2004, pp. 211-222.

Lal, Vinay. “Unhitching the Disciplines: History and the Social Sciences in the New Millenium”, *Futures* 34, 2002, pp. 1-14.

Lal, Vinay. “Much Ado about Something: The New Malaise of World History”, *Radical History Review* 91, 2005, pp. 124-130.

Lal, Vinay. “Provincializing the West: World History from the Perspective of Indian History.” In Benedikt Stuchtey, Eckhardt Fuchs, eds., *Writing World History 1800-200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pp. 271-289.

Landes, David S. *Wealth and Poverty of Nations: Why Some Are So Rich and Some So Poor*, New York: Norton, 1998.

Loomba, Ania. *Colonialism/Postcolonialism*, London: Routledge, 2005.

Mazlish, Bruce, Buultjens, Ralph. eds., *Conceptualizing Global History*, Boulder: Westview Press, 1993.

McNeill, William H. “Mythistory, or Truth, Myth, History, and Historians”, *American Historical Review* 91, 1986, pp. 1-10.

McNeill, William H. “The Changing Shape of World History”, *History and Theory* 34, 1995, pp. 8-25.

Nandy, Ashis. “History’s Forgotten Doubles”, *History and Theory* 34, 1995, pp. 44-66.

Pomeranz, Kenneth. *The Great Divergence: China, Europe and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Ec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

Rüsen, Jörn. “How to Overcome Ethnocentrism: Approaches to a Culture of Recognition by History in the Twenty-First Century”, *History and Theory* 43, 2004, pp. 118-129.

Sachsenmaier, Dominic. “World History as Ecumenical History?”, *Journal of World History* 18, 2007, pp. 465-489.

Seth, Sanjay. “Reason or Reasoning? Clio Or Siva”, *Social Text* 22, 2004, pp. 85-101.

Seth, Sanjay. “Which Past? Whose Transcendental Presupposition?”, *Postcolonial Studies* 11, 2008, pp. 215-226.

Taylor, Charles. “Politics of Recognition.” In Gutmann, Amy. ed., *Multiculturalism: Examining the Politics of Recogni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pp. 25-73.

Trevor-Roper, Hugh. *The Rise of Christian Europe*, London: Thames and Hudson, 1965.

Werner, Michael, Zimmermann, Bénédicte. “Beyond Comparison: Histoire Croisée and the Challenge of Reflexivity”, *History and Theory* 45, 2006, pp. 30-50.

Wolf, Eric. *Europe and the People without Histo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2.

Between the Local and the Global: Global History beyond Eurocentrism

Kim, Yong-Woo

In this article I would address the possibility of getting out of Eurocentrism through the new historiographical trends, so called “New World History” or “Global History”. For global historian to get closer to that possibility, I would argue, it is of necessity to try hard to pin down the modus operandi and the location of Eurocentrism. In contrast to the common sense approaches, the modus operandi of Eurocentrism is the inclusion rather than the exclusion and the locus of Eurocentrism is historical consciousness itself. The first step to go beyond Eurocentrism starts to historicize history itself. And also the global environment crisis such as global warming could be good opportunity to reconceptualize the universal which is quite different from Hegelian perspective and upon which new kind of universal history or global history, for exemple “big history”, could found.

Key words : Global History, New World History, Eurocentrism, Big History, Universalism, Historicism

김용우
소속: 이화여자대학교 지구사연구소
주소: 경기도 안성시 숭인동 우정에쉐르아파트 101동 402호
전화번호: 031-673-7618
전자우편: kimywoo@ewha.ac.kr

이 논문은 2009년 10월 31일 투고하여
2009년 12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09년 12월 31일 간행함